

## 정절의 형성과 그 변이를 둘러싼 객관적으로 편파적인 글쓰기

김정경(서강대학교)

1.

대체로 과거에 대한 관심은 민족이나 문학 또는 여성이라는 개념의 고정된, 불변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집중되었고, 일부의 연구자들은 당대의 생활 현상이 아닌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이 개념들을 현재의 맥락에 따라 임의로 전유했다. 즉, 여전히 과거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숙인의 작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연구가 기존의 이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여사서』와 『열녀전』을 번역한 이숙인의 연구는 언제나 대상이나 개념의 고정된 의미가 아닌 그것의 형성과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여사서』와 『열녀전』의 번역과 주석 작업은 중국과 조선의 서로 다른 시기에 편찬된 교훈서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기에 각각의 시대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학자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은 ‘지금’ ‘이곳’의 ‘나’를 이해하고 싶어 옛 것을 뒤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학문적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절의 역사』에서 이숙인은 조선 여성, 구체적으로는 ‘정절’이라는 개념을 ‘바로 읽기’하는 법을 보여준다. 저자는 열녀 또는 정절,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라는 개념에 고정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탐색하는 것과는 달리, 상이한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들 개념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즉, 정절이라는 개념의 형성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선시대 담론장을 읽고/쓴다.

정절은 기본적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배우자의 상호 의무 개념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아내의 일방적 의무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과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효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하위자의 의무였다. 또한 정절은 부부의 사적 관계를 반영한 도덕 개념이지만 삼강三綱의 질서로 편입되면서 사회 및 국가의 이념과 결부된 공공의 것이 된다.(『정절의 역사』, 14쪽)

이처럼 저자는 ‘정절’이라는 개념이 조선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기본적으로 “정절 또한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정절의 역사』, 10쪽)고 전제하고 상이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정절 개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의 각 장은 ‘법과 제도’ ‘국가적 실행’ ‘학습과 지식’ ‘사건과 논쟁’의 네 범주로 구분되어 “정절의 이름으로 조선 사회에서 행해진 의식과 실천의 역사”(『정절의 역사』, 11쪽)를 담아내고 있다.

먼저 1부 ‘정절의 법과 제도’는 여성의 정절 문제와 관련된 조선의 법적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경국전(1394) 경제문감(1395) 경제육전(1397) 경제육전속전(1407) 경국대전(1485) 대전속록(1493) 대전후속록(1543) 수교집록(1698) 신보수교집록(1739) 속대전(1746) 대전통편(1785) 대전회통(1865)의 법률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법전을 검토한 데에 이어 법전보다 더 법적인 기능을 한 강상법과 도덕법에서 여성의 정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살피고, 이어 이 법과 규율이 어떻게 처벌 또는 포상되었는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문서로 명시된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실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 것이다.

2부 ‘정절의 문화정치학’에서는 절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된다. 실록에 나타난 절부에 대한 기록이 조선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절부를 발굴하는 남성 사대부들의 이념과 그 실상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2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절부 혹은 열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지극히 편협한 것이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남성 지식인들이 쓴 기록을 통해 “열녀는 ‘발견’되거나 ‘발명’된 것으로,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 ‘사실’을 언어화하는 과정”(『정절의 역사』, 137쪽)을 필요로 하는 담론적 실천임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3부 ‘정절의 학습과 지식’은 『삼강행실도』 『열녀전』 『여사서』 『예기』 『소학』 등에서 정절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려 “정절의 지식체계를 원론적인 입장에서 재검토”(『정절의 역사』, 13쪽)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정절을 둘러싼 무수한 논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며, “유학의 지식체계를 통해 여성의 성을 해석하는 조선 사회의 방법과 내용”(『정절의 역사』, 244쪽)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3부에서 우리는 ‘성’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이 “중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정절의 역사』, 244쪽)을 가졌으며, 이러한 “여성에 관한 유교의 경전 지식이 조선의 현실에 인용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걸돌 수밖에 없었음”(『정절의 역사』, 245쪽)을 알 수 있다.

마지막 4부 ‘정절의 사건과 논쟁’은 정절의 문제를 내포한 주요 사건으로 세종조의 유감동 사건과 성종조의 박어울우동 사건을 들어 “음부 및 간부에 대한 남성 사대부들의 인식”(『정절의 역사』, 13쪽)을 보여주고, 개인 문집의 ‘논’과 ‘설’에 나타난 지식인들의 정절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 사대부들의 생각이 동일하지만은 않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 3.

이상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정절의 역사』가 조선의 여성 특히 조선 여성의 정절이라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수다한 차원의 논의들을 교차시키는 담론의 장을 구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담론 공간은 조선의 이념과 조선의 현실, 정절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조선의 이해, 그리고 조선 사대부들 간 ‘성인식’의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조선에 대한 지금 우리의 생각과 그 실상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숙인의 작업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능한 빠짐없이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선이라는 담론 공간 안에 여성의 자리가 어디쯤에 마련되는가를 보여주며, 독자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과 정보를 접하게 된 것만으로도 조선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책 속에 제시된 것 가운데 남성 사대부의 모순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란 후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아버지의 엇

갈리는 이해”(『정절의 역사』, 143쪽)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남성 사대부들은, 적에 잡혀갔다 돌아온 며느리가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다는 주장과 딸이 잡혀갔다 속환되었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하는 것은 원통한 일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아들의 아버지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닌 것이, 부모의 원대로 환향녀인 아내와 이혼한 장선징의 아들은 30년 후 환향 부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9품의 하급 관리 자리마저도 허락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성 사대부들의 정절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그들 자신을 옹아매는 상황에 대해 저자는 “조상과 후손의 흠결 없는 영속을 위해 내쳐졌던 ‘환향녀’ 며느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 또 ‘신성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오염된’ 며느리를 내치고자 그렇게 고심했던 장유와 그 부인 김씨는 지하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정절의 역사』, 149쪽)라는 질문으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대신한다.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자신의 글쓰기가 “가부장제 비판의 글쓰기”(『정절의 역사』, 15쪽)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방법은 이러한 식이다. 즉 저자는 명백하게 중립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끌어내어, 객관적으로 편파적인 “가부장제 비판의 글쓰기”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숙인이 펼쳐놓은 조선이라는 담론의 장을 읽다보면 그 안에 살았던 여성들의 생각이, 욕망이, 꿈이 궁금해진다. 조선 여성들을 규정했던 당대의 법률과 규범 그리고 지식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수록 남성들이 결코 알 수 없었을, 역사적인 기록이 절대 담지 못했을 여성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정절을 지키려다 죽은 여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녀들의 한은 어찌되었을까’ ‘성과 관련된 엄격한 규범들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던 현실을 여성들 스스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편으로 『정절의 역사』를 읽은 독자들도 생각도 궁금하다. 책의 서두에서 이숙인은 자신의 책이 ‘전통의 향기’를 꿈꾸는 이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던 자신의 신념이 사실 몇 백 년 전 조선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즉 그 신념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역사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독자들에게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켰을까.

글쓴이가 조선의 여성을 대신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전통의 향기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 여성인권과 안티고네의 윤리

백상현(한국프로이트라캉칼리지)

### 1. 생각의 탄생 = 욕망의 논리의 중심에 채워지지 않는 빈공간을 유지하는 기술

지난 번 컨퍼런스에서 맹정현 박사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은 초근접 사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징적 아버지는 자신의 부재를 매개로 아이의 상징계 구성을 촉구하는데, 오늘날의 아버지가 어떻게 바로 그와 같은 결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태만에 봉사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었다. 이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낫설어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해설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결여 없는 세계** : 인간의 생각이 탄생하는 과정은 **결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이다. 즉 없음에 대해서 인식함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의 순환을 시작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렇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이 만족되거나, 그러한 만족의 가능성이 공격당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젓먹이의 세계는 그렇게 단지 있는 것들의 세계이며,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 그러한 없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젓먹이들의 세계는 "보채는" 세계이며, 여기서 없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불가능하다. 아이가 만일 울음을 그친다면, 그것은 불만족스러웠던 현실이 다른 위협에 의해 잊혀졌거나, 혹은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만족이 최초의 불만족에 대한 집요한 요구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젓먹이 아이들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며, **균열 없는 미끈한 평면의 세계**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성은 받아들여지는 대신 거부되는 메커니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젓먹이는 균열에 저항하며, 불만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만족의 형태로 전환시킨다. 젓먹이들의 사고는 이렇게 없음에 대한 철저한 외면 속에서 진행된다.

**아버지의 은유** :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라캉정신분석 이론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젓먹이의 세계에 균열을 도입한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생사여탈권을 소유한 완전한 존재로서의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부재는 실질적 부재, 즉 외출과 같은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고, 심리적 부재, 즉 다른 대상에게로 어머니의 욕망이 향하는 암시적인 경험의 형식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어쨌든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최초의 상실을 경험토록 하는 사건의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부재를 설명하려 오는 말들의 질서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 또는 은유의 기능이다. 아이는 어머니가 어째서 외출하는지를 말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또는, 어째서 어머니는 새로 태어난 동생을

돌봐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양보가 어째서 좋은 일인지를 말로써 받아들인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친지들의 말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상징적 질서의 출현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했던 욕망의 대상이 상실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바로 이것이 정신분석이 말하는 거세이다. 아이의 세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즉 거세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말의 질서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있는 것들의 질서 내부에 **없는 것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아이는 말을 통해서 지금은 여기에 없는 것, 여기서 실현불가능한 만족을 규정하고 상상하게 한다. 어머니는 지금 여기에 없다. 그녀는 회사에 가야 하거나, 동생을 돌봐주어야 하거나, 심지어는 드라마를 봐야만 한다. 어머니의 없음에 대해서 **말의 질서는 없음을 구체화 하고 그것이 미래에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말은 그렇게 아이의 정신 속에 균열을, 부재를, 결여를, 따라서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온다. 아이의 욕망은 바로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공백의 탄생** : 아버지의 은유가 제대로 작동하여 자신의 욕망의 즉각적 실현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 아이는 철이 든 것이 된다. 아이는 욕망의 대상이 지금 여기 자신의 눈앞에 부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에 굴복한다. "말 잘 들으며 기다리면 엄마는 곧 오실거야". "공부 열심히 하면 너도 아빠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나가서 놀 수 있어". "대학 가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으니 지금은 공부해". 기타 등등의 논리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공백과 함께 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사유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속에서의 공백의 운용**이다. 그것은 **욕망의 논리의 중심에 채워지지 않는 빈공간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아버지의 역할이란, 혹은 부모의 말 속에서 아버지의 은유라는 기능이란 바로 이러한 공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를 통해서, 즉 욕망의 실현에 대한 수수께끼의 기능을 통해서 사유를 자극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소유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의문을 던져주는 사람이다. 욕망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러한지를 **아이 스스로 알아보도록, 즉 상상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의문부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재하는 방식으로 실존하는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인 것이다. 맹정현 박사의 지적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기능이 즉각적인 답을 주는 아버지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분석이었다. 아이가 욕망하는 것, 사랑인 그것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아버지는 **아이의 사유 속에 공백이 유지되는 것을 방해한다.** 아이는 자신의 욕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욕망의 운용에 실패**하는 존재가 된다. 아이는 떼쓰고 울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이것에 공모하는 아버지의 적극성으로 인해 **욕망의 즉각적 실현이 합법화**된다. 이제 아이는 주어진 욕망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상상을 하는 대신, 주어진 욕망의 단순한 실현에 몰두한다. **ADHD,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라고 미국-상품주의-정신의학(DSM)이 명명한 단순한 증상의 대대적 출현의 이면에는 이렇게 정신의학이 상상조차 하고 싶

어 하지 않는 심리적 구조의 사회적 변화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 2. 초고선명UHD 사회. (Ultra high definition society). ADHD, 우울증, 자살.

앞선 논의가 지난 회 컨퍼런스의 맹정현 박사의 논점에 대한 보충이었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필자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초근접 사회를 초고선명 사회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초고선명 사회는, 아버지의 기능이 부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존의 과도함을 통해서 아이에게 접근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차원의 보충 개념이다. 이러한 보충이 필요한 이유는, 과잉행동장애-주의력결핍 등등의 신종 병명들을 비롯하여 충동에 대한 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새로운 증상들의 출현은 그럼에도 정신병자의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 기인한다. 충동조절장애를 보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상 **여전히 신경증자들**이다. 즉 정상인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출현하는 증상으로서의 초근접 아버지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기능의 태만 속에서 정신병적 구조를 허용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다른 종류의 아버지, 20세기말과 21세기가 출현시킨 전혀 **다른 종류의 아버지의 은유가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아이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다 들어주는 친구 같은 아버지는 나름의 특수한 상징계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상징계의 구조가 현대의 아이들을 충동조절장애 속에 던져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구조의 아버지의 은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욕망의 결여-공백을 수용하도록 하는 아버지의 은유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형식을 갖게 되었는가?

**새로운 아버지 : 상품논리의 아버지 은유/가격표/자본주의적 고전주의.**

필자는 그것을 상품논리의 아버지로 규정하려고 한다. 현대의 아버지의 은유는 가치의 기표들과 같은 텅빈 구조의 담화로 부재를 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논리의 담화를 통해서 부재를 유지**한다. 그것은 가격표를 통해서 **선명하게 명명되는 부재들**이며, 따라서 구입의 과정과 절차가 선명하게 제시될 수 있는 부재이다. 지금 여기 아이의 욕망의 대상이 부재한다면, 그것을 되찾는 방법은 너무도 명백해진다. 돈을 벌어서 사면 되는 것이다. 혹은, 수능 점수로 만회되는 것이다. **부재의 틀과 폭이 수치로 측정되는 사회.**

**자아 이상 : 훌륭함이란 무엇인가?** : 쉬운 예를 들자면, 아이는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러한 동일시를 통해 미래의 욕망의 성취를 상상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훌륭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했다. 아버지의 훌륭함과 선생님의 훌륭함과 위인들의 훌륭함의 구조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훌륭함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즉 부재의 방식으로 아이의 사유를 초대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훌륭한 아버지란 어떤 아버지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연봉과 직결되는 이미지** 속에 포획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추상적 가치의 모호함이 가격표의 선명함으로 채워지는 사회가 된다.

**대상a의 가격** : 혹은, 아이의 욕망의 대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대상a들의 연쇄가 상품가치의 논리 속에서 상당히 선명하게 규정되고 있는 현상은 어떤가? 아이들은 확실히 과거의 세대보다 선명한 시대를 살고 있다. 아이들의 욕망은 이제 더 이상 모호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현의 확실한 구도를 제시받는다. **대상 a는 오직 흔들림의 모호함 속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것은 욕망의 과정이 질문의 과정이 되도록 개방하는 흔들림이다. 그런데, 상품자본주의의 현실은 그와 같은 모호함의 절차를 삭제해 버린다. (신경증의 의심은 정신병적 확신으로 고착된다).

**충동조절 장애? : 공백을 견디는 능력의 상실** :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선명함이 충동조절장애라는 역설적인 증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선명하지 않은 것들에 노출되는 경험을 견딜 수 없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자신의 욕망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상태의 모호한 요청을 견딜 수 없어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아이는 이러한 상태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공백을 견디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빈공간 증후군과 같은 불안이** 아이들을 사로잡는 것이다. 아이들은 텅 빈 미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미래의 공백을 일종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것에 대해서 발작한다. 당장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면 발작하는 현상은 **원하는 선명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백에 대한 발작과도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병자의 발작이나, 자폐증자의 저항과는 전혀 다른 충동조절장애**이다. 아이들은 결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오직 선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선명한 사태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부재하는 상태를 견뎌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리적 이득을, 즉 가격표를 제시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의 초인적인 수업 스케줄을 감당해 낸다. 충동조절장애가 일반화된 사회현상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 내는 이유는 **수능이라는 명백한 지표가** 그들의 욕망의 상실을 보상하는 선명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충동조절장애라는 현상이 곧 **학습능력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 대단히 기이한 현상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욕망의 비밀이다. 소위 상위권 대학이라고 말해지는 곳에서 벌어지는 충동조절장애의 현상과 사건들, 자살, 살인과 같은 **자기 통제의 실패현상들은** 결국 충동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아이들은, 선명함이 배제된 현실을 견딜 수 없어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충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아버지-은유의 담론은 선명성의 담론, 자본주의의 담론, 네이버 지식인식의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 3. 일베 현상 : 완전하고 선명한 사회

이 같은 초고선명 사회가 야기한 가장 부정적인 증상이 바로 일베 현상이다.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어린 학생들이 일베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가 대체로 일종의 **충동**과 관련된 현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사이트에 접속하고, 금지된 욕설과 세계관을 배설한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마법처럼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일까?

**성도착의 구조** : 일베의 담론 구조를 살펴보면 그것이 **완결된 세계에 대한 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베의 세계관은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완결된 세계에 대한 즉각적 만족에 있다. 그곳에서는 과거 독재자들이 찬양되고, 국정원이 세계를 통제하는 경찰국가로서의 한국이 그려지고 있다. (**절대시계**). 이러한 완성된 독재 세계에 대한 충동은 성도착에서의 새디즘과 매저키즘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새디즘과 매저키즘의 논리는 **거세되지 않은 어머니의 절대권력**을 현실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새디즘의 환상은 그러한 파괴를 행사할 수 있는 절대권력의 세계를 가정하고 이러한 세계의 향유는 완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폭력의 희생자는 일종의 물신적 대상과 같이 제물로 바쳐진다. 마찬가지로 일들이 매저키즘에서도 일어난다. 일베가 정치적 차원에서 독재적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사건들에 가혹한 억압을 상상하는 것 역시 성도착의 논리 속에서도이다. 마찬가지로, 일베는 이러한 파시즘적 환상 속에서 여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성 성적 모독을 즐긴다. 새디즘의 논리가 남김없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일베적 정치** : 어쩌서 일베의 현상이 오늘날 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진단은 역시 초선명 사회 현상으로부터 찾아진다. : 일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도착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불투명한 것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이며, 추상적인 가치들에 의존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치들을 철저하게 텅 빈 기표들에 의존한다.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단어들은 일베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도 공허한 단어들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즉각적인 답안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길들여온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너무도 **길고 불확실한 해답**을 제시한다.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진다.

**일베적 사랑** : 성적 쾌락의 만족은 즉각적이며, **배설로서의 섹스는 의문점을 남기지 않는다.** 그보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욕망을 운용하는 둘 사이의 만남은 훨씬 불확정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만족의 가능성 역시 불확정적이다. 사랑이라는 실천은 그야말로 **내기와 같아서** 그곳에 투자된 에너지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낮게 느껴진다. 따라서 일베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춘을 하거나, 자위를 한다. 성이라는 실천을 철저하게 상품논리 속에서 파락하는 것이 출현시키는 극단적 현상들이다.

**사례) 세월호 시위**와 관련하여, 단식투쟁 유가족과 폭식투쟁의 일베 현상이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공백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단식이란 단지 먹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신분석에 서는) 공백을 먹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은유한다면, 공백을 먹는 것은 공백으로 진입하는 투쟁이며, 그곳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환영을 일소하고, 창안적이며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즉 유가족들에게는 정의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순간의 도래를 의미한다. 폭식은 바로 이러한 공백의 존재를 매우고, 그곳을 음식물로 은폐하는 것, 즉 주어진 세계관의 지배를 통해 공백을 소멸시키려는 욕망이다. 여기서도 공백의 출현은 세계를 위협하는 불안의 유령으로 파악된다. 단식투쟁은 바로 이러한 공백의 유령을 적극적으로 소환하는 실천이며, 일베의 폭식은, 균열 없는 세계의 절대 이미지를 위한 공백의 억압이다.

#### 4. 오이디푸스 마케팅.

이 모든 현상들은, 그렇다면, 아버지들의 탓인가? 혹은, 어쩌서 오늘의 부모들은 선명함에 매료되어 가치들의 모호한 체계를 포기하고 말았는가?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 :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유령** :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주의를 말한다. 그것은 일자에 대한 비판을 말하며,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명제를 일상생활 속에 실현시킨 사회를 말한다. 오늘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추상적 가치의 초월적 지위**가 아니다. 모든 가치는 의심받고, 상대주의라는 의미의 진공 상태에서 질식당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한국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오늘날 보다 더 경제가 어려웠던 조선시대에도, 심지어는 전쟁통에도 결혼은 했다. 현재의 **결혼률 하락**은, 그리고 **출산률 하락**은 가족의 가치와 인간에 관한 가치의 초월성이 의심받는 현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의 자연스런 법칙** 즉 **인간의 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명하지 못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내기**를 걸지 않는 것이다.

**다원주의?** : 따라서, 현대 우리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정의라고 말해지는 것은 "**다원주의**"이다. 모든 개성은 좋다-라는 모토. 모든 차이는 좋다-라는 모토가 그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좋은가? 다원주의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강력한 윤리적 원천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실제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먼저, 다원주의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보자.

**부르카 금지법** : 여러분은 텔레비전 속에 등장하는 이슬람 여성의 베일과 부르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 공공기관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에 대한 법률을 통

과시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언제나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부르카는 문화이며, 그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토록 타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식들의 가치가 수능이라는 척도를 벗어나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오늘날 한국 부모들의 심리 아닌가?

**다원주의라는 폐허** : 부모들, 즉 우리들이 추상적 가치에 의존한 상징계를 포기한 것은 전적으로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영향이다. 이것은 비판 없이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던 봉건적 질서의 세계를 거부하도록 하는 효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가치의 체계가 물러가버린 폐허 위에서 우리들, 부모들, 가족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없는 불안감 아닌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예전 같다면 그저 삼강오륜을 따르고, 공자 왈 맹자 왈 하는 도리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세대에 속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부재 속에서 공백에 노출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이 광장을 비워버리자, 그곳에 **행상과 예언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종교가 가치를 논하던 민주주의의 아고라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우리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밤거리를 내려다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꺼지지 않는 상품광고의 네온사인과의 불빛 아닌가? (이것은 18세기 말 계몽주의적 혁명의 실패가 19세기의 공리주의 윤리를 출현시켰던 것과 유사한 과정이다. 공리주의와 실증주의 철학은 추상적 가치의 개념을 포기한 세기의 철학이다).

사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역사적 사실의 설명을 위해 **대치동의 스타강사들**을 출현하는 사례들은 지식에 대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관점을 설명한다. 지식이란, 점수로 파악 가능한 실증적 대상일 뿐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의 확실한 측면에만 주목한다. 그 확실한 측면이란, 가격이며 수능점수이며 효용성이다.

**가치 대신 가격** : 이제 우리는 가치를 믿지 않는 대신 가격을 믿는다. 이제 아버지의 은유는 더 이상 모호한 가치의 기표들을 발음하는 대신 가격표를 제시한다. 수능점수는 아이의 가격표이며, 연봉은 아버지의 가격표이다. 모든 것은 수치계량적 규범 속에서 한없이 투명해진다.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은 정확한 가격표에 의해 규정되며, **전형화된다. (멘토들의 세계)**. 상품자본주의 사회가 실현시킨 바로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초선명 사회이다. 이제 자신이 얼마짜리인지를 말할 수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고로, 다음과 같은 현대적 존재론의 명제가 설정된다. **"나는 상품화된다. 고로 존재한다"**

## 5. 가족 로맨스 : 만일 가족이 소설이라면, 즉 허구라면, 허구의 작가는 우리 자신이여야 하지 않을까? 공백으로부터 연대하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를 상품화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욕망의 즉각적 반응들을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가? 선명한 이미지 속에서만 가족의 모습을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 뿐인 것 같다. 필자는 이것을 라깁의 지혜로부터 빌려오고자 한다. 라깁은 욕망의 윤리를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즉, 바닥이 보일 때까지 욕망하라!**  
**현상의 바닥, 즉 존재를 욕망하라!**

이 명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족 구성원의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 대해 욕망한다면, 그와 같은 욕망을 상품주의적 선명함이 멈춰 세우는 곳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깊이 욕망하라는 것이다. 더 깊이, 아주 깊이 욕망이 나아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 그곳은 바로 공백의 영역이다. 바로 이것이 라깁이 자신의 세미나 7에서 안티고네의 욕망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국가의 법에 대항하여 자신의 오라버니의 매장을 주장했던 안티고네의 욕망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법, 즉 모든 사람이 옳다고 믿는, 현재의 고정관념을 초과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환영은 상품자본주의의 환영이며, 이것은 실정법에서 상식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환영은 타자에 대한 우리의 너무 깊은 욕망을 가로막는다. 너무 깊은 욕망은 타자의 존재를 욕망함이다. 그리고 존재는 인간의 고유한 욕망이 시작되는 장소, 엑스 니힐로의, 무로부터의 창조가 시작되는 공간이다. 그곳을 우리는 라깁을 따라서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이 상실된 자리의 공백. 타자의 바로 이곳을 욕망해 준다는 것은 타자의 가능성을, 오직 순수하게 그것만을 욕망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가장 근접한 타자인 가족 구성원,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자식들이 가진 공백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들의 수능성적을 욕망하는 것도, 그들의 사회적으로 알려진 성공을 욕망하는 것도 아니다. 공백을, 그리하여 존재를 욕망함이란, 그들의 가능성을 욕망함이며, 그들이 그러한 공백의 지대에서 충분히 머물며 타자의 욕망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을 창안해 낼 것을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 6. 공동체 로맨스 : 공백을 중심으로 연대 :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백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가족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 만일

가족이 연대의 가장 기원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내가 알고 있던 아내여서가 아니라, 그가 내가 원하던 모습의 아들이나 딸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텅 빈 장소에, 가능성의 장소이기도 한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심리적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것이 연대다. "너는 잘하는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내가 또는 우리 사회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가능성이 없음의 형식으로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없음은, 내가 볼 수 없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지배에 붙잡히지 않는, 그리하여 항구적으로 빠져나가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연대이기 때문이다.

**공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연대는 사회적 연대와 연결되는 원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는 곧장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가족의 연대가 진정으로 사회적 연대의 토대임을 증명한다. 가족의 연대는 가족의 **이기주의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을 사회적 장으로 개방하는 역동적 연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공백을 근거로 인정해주는 실천은 즉각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공백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 낸다. 왜냐하면, 공백이란 알아 볼 수 있는 속성의 부재를 의미하며, 그로인해 복사나 중복 역시 불가능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족 내의 공백은 사회 공동체 내의 공백과 정확히 동일한 단 하나의 공백일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백은 어디를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가?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없는 것으로, 마치 유명과 같은 **비-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자들의 공간**에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곳이 바로 **미성년 미혼모들, 이주여성들, 불법체류 가족의 여성들과 자녀들**이다. 이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공백에 근접한 형상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틀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한, 그리하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말았던 자들의 영역이 그들의 장소다. 이들에 대한 주목은, 공백을 주목함이며, 이러한 주목은 또한 가족 내의 공백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 낸다. 가족의 외부와 내부의 공백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오직 실천 속에서만 사후적으로 가능할 텐데, 바로 이러한 각성은 결국 공백의 보편성을 윤리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 7. 우리의 안티고네, 공백에 접근하여 투쟁하는 존재들 :

라캉에 따르면, 임상적 차원에서 우리의 무의식의 저편에는 충동의 무의미한 공간에서 끝없이 고통(향유)당하는 우리 자신의 분신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 선명함의 세계가 무의미와 불투명성으로 점철된 우연적 사건의 무한 반복을 은폐하기 위한 환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필자는 우리의 무의식의 중핵에 위치한 이와 같은 충동의 얼룩들, 텅 빈 허무의 공백에 달라붙어 **요동치는 충동의 파동을 새로운 나 자신의 창안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라깁이 이미 그의 이론 속에서, 그리고 임상적 실천 속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바이다. 라깁이 모든 질서의 저편에, 일탈과 광기의 장소에 고집스레 머물고 있는 안티고네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일 년의 세월을 바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모든 환상을 우연히 횡단하게 된 안티고네의 욕망은 공백의 지대에, 충동의 지대에 머물면서 자신의 윤리를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이 크레온의 국가가 허용하는 법의 한계를 초과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법의 최종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있음을 고집스레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 속에서 필자가 미성년 미혼모들과 이주여성들과 불법체류 가정의 약자들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누구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존재 주장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 뿐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도 남들과 똑같은 인간이며, 그러한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 속에서 평등하고 정당하게 취급받을 것에 대한 어찌 보면 너무도 간단한 권리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은 안티고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법의 최종적인 권위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존재와 관련하여 법의 최종적인 권위란 오직 존재 자체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백과도 같이 없는 사람 취급당했던 그들의 비존재가 존재의 질서 내부로 편입되는 순간, 즉 인간으로 인정받는 순간 세계가 바뀐다. **없음을 있음으로 전환시키는 순간, 기존의 있음의 질서, 즉 존재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나의 존재가, 공동체의 질서가 생성된다. 이것이 바로 라깁이 말했던 창조론적 진리 개념이다. 라깁이 환자의 자아를, 그것을 채우고 있는 환상들을 횡단하여 공백의 지대에 도달하고,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나의 창안을 위해 치료의 방향을 오직 욕망에 근거하여 이끌어나가려고 했던 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8.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대한 라깁의 해석.

그리고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사랑의 교리 아닌가? 네 이웃이란 기독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깁에 따르면, 네 이웃이라는 유대어는 동포의 반대말이다. 그리고 네 몸이란 또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묘사 불가능한 대상, 동어반복으로만 (비)지시 되는 대상 아닌가? 그것은 결국 공백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공백이다. 나의 공백처럼 타자의 공백을 사랑하라는 이 명제는 결국 정신분석의 윤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